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성령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 설교

성장을 위한 준비

(사도행전 1장 12 - 26절)

우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개인의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10일간의 준비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본문은 이 열흘 동안 있었던 일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상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오십 일이 되는 명절입니다. 그 때 성령이 임하셨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마음을 같이 하여 120 문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성령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한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교정시키시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시거나 혹은 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비견할 수 있는 책일 뿐 아니라 복음서와 서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1.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준비하는 시간 동안 순종을 배우고 실천을 했습니다. 순종은 장차 성장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도에게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원망과 절망 속에 흩어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늘로 홀연히 가셨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2절).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름다운 미래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순종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루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13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오고 (14절), 모인 무리들이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15절). 유대법에 의하면 120명은 공동체 구성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버리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며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한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교정시키시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시거나 혹은 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에 충실합니다. 모인 무리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렬한 기도를 했습니다.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는 두 세 번 하고는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기도실은 교회의 기관실이며 조타실입니다. 교회의 열도와 진도는 전적으로 교회의 기도실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실이 불타오르면 그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거니와 기도실의 불이 꺼지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사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연구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연구는 과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16절).

사도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고 성경말씀을 잘 연구했습니다. 사도들은 시편 69:25와 109:8을 인용하며 유다에 대해 예언한 것을 말씀에서 찾아냈습니다. 기독교인이려면 누구나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성경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5. 지도자의 필요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맛디아는 본문 외에는 더 이상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별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맛디아를 뽑는 일에 대해 사도들을 향해 한 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산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불명예스러웠고 그가 간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맛디아라는 새로운 일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성장하기 위해 순종하며 더불어 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올림픽 홀을 가득 채우기를

헨델의 "메시아"로 크리스마스를 16일(화) 저녁7시 올림픽 홀에서

지난 4개월 간 우리 교회가 주관하여 준비하여 온 제36회 메시아 대 연주회가 드디어 오는 12월 16일(화) 저녁 7시 올림픽공원 안에 위치한 올림픽 홀에서 열린다.

이 올림픽 홀은 약 4,000여석 규모이기 때문에 주관교회인 서울교회 성도들이 그 질관에 해당하는 2,000여석 이상의 좌석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여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연말을 맞이하여 수많은 송년행사가 줄을 잇고 있는 12월 우리교회 성도들은 음식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송년의 밤을 보내기보다 우리 주님나신

날을 기념하며 메시아를 함께 부르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년의 밤으로 삼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입장권을 가지신 서울교회 성도들께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앞자리부터 좌석지정을 하게 되므로 서둘러 오시기 바라며 좌석교환은 오후 5시 30분부터 가능하다.

메시아 연주회가 열리는 올림픽 홀 약도는 오른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올림픽홀 약도

축제 분위기로 준비되는 송구영신예배 31일 지정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이번 송구영신예배를 교회와 성도아 함께 기쁨으로 맞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부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부서별로 5-7분 정도 길이의 찬곡을 발표하게 되며 시상도 한다. 부서별 신청은 28일(주)까지 사무국에서 받는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 계속 접수 중 사무국으로 접수 요망

매년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돕는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벌이는 우리교회는 내년에도 계속하여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펴며 후원할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힘을 북돋아 주는 100교회운동에 참여할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임명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12월 한 달 동안 내년 교회 각 부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일꾼들을 임명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들을 임명하는 순서를 갖는다.

오늘 임명받게 되는 교사들은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확실한 소명을 갖아야 한다. 또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맡겨 가르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맡기신 생명을 위하여 중보의 기

도를 끊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을 내 생명과 같이 보살피는데 앞장서야 한다.

I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 1국과 2국, II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 4국과 5국, III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 3국의 교사들이 임명받게 된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간 중에 임명받기로 되어있던 각 위원회와 부서의 일꾼들, 전도학교 수료도 이종운 담임 목사가 타 교회 행사에서 설교하게 됨에 따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임명받게 된다.

살롬권사회 신·구회장에게 듣는다

날로 새로워지는 여종들

전인화 권사(전임 살롬권사회회장)



"나는 소중한 존재다." 월례회의 때마다 지혜영 전도사님의 선창으로 살롬권사님들은 표어로 의젓합니다. 연약한 육체이지만 비록 아픈 허리, 무릎을 구부려 앉아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병든 자, 가정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기도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대단하고 소중했던 여종들이었는데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의 고령들이 되었으니 지금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러나 걸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살롬권사님들의 교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은 그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썸짓돈을 꺼내 소정의 회비라도 한마음으로 모아 교역자님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병들어 고생하는 권사님들을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다섯 달란트 맡은 사명자는 못되어도 두 달란트 맡은 사명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금년에도 네 분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살롬권사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그 수에 변동이 있을 것이지만 몸이 불편하여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모이는 수가 적어지지만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건강의 복을 받은 우리 살롬 권사님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에도 은혜 중에 강건하셔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부여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열심히 살롬권사회 이름아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일년간 작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족한 회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살롬-

김중자 권사(신임살롬 권사회회장)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지금까지 지내온 많은 세월들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살롬권사회장의 귀중한

책임을 맡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에 한없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모든 계획과 진행을 손수하실 것이기에 다만 주님의 도구된 자로서 바른 순종과 겸손으로 행하며 주신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은빛머리와 쇠약해진 몸이지만 사랑하는 회원들과 더불어 웃고 울며 사랑의 빛진 살롬권사회가 되어 교회와 후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규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살롬권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사의 제일 되는 의무인 기도하는 권사로서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피차에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육신은 쇠퇴하여 가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회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해주시는 지혜영 전도사님과 그동안 수고해주신 전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후 하나님과 교회에 성실한 보고서를 드릴 것을 약속하며 저희 살롬 권사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꾼들에게 듣는다

알려 드립니다



오광환 집사(스데반회 신임간사)

200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한때가 었고제 같은데 벌써 1년 세월이 지나고 다시 2004년도를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을 계산하

며 무엇을 남기는 한 해인가 생각 할 때에 그저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저에게 스테반회 간사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중책을 맡고 잘 이 끌어 나갈 수 있을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 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평가를 기대하며 내년도 스테반회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도의 연합을 위해 스테반회원들이 낮은 곳에서 전심으로 섬기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주신 성전을 채우는 한해가 되도록 전도에 최우선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지은 성전을 온전히 바치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며 회원 간 단합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하기는 주신 직분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경희 권사(신임권사회장)

아무데도 쓸모없는 부지깽이와 같은 이 여중에게 분에 넘치는 직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송구스런 마음이 먼저 앞설 따름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선배님들과 동역하시는 회원님들의 조원과 도움을 힘입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 를 드립니다.

다만 뽀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푹대만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릴 뿐입니다.

먼저 우리 권사회 임직원들이 겸손으로 떠 떠고 모든 회원의 종이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경함으로 화합하는 권사회가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며 몸된 교회에서 증보기도의 중심축을 굳건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방침 아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천국 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세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며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라는 새해의 주제에 걸 맞는 한 해로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찌들고 얼룩진 죄악의 찌꺼기까지라도 도말하여 주시리라 믿고 온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움기는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강건케 하여주시어 내년 한 해가 저물 때 아쉬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 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책망 받고 문밖에서 흐느끼는 여중이 되지 않도록 권능의 손길을 펴주시옵고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도하여주시심을 기다리며 순종의 여중으로 붙들여 주실 것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도움과 채찍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상욱 (청년부 신임회장)

2004년도 청년부 정, 부회장을 뽑던 주일, 이종윤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며 '내년도에는 누가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일꾼이 될지 모르지만 무척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해야 할 장본인이 나 자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뜻밖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뒤로 하고 충성과 굳은 결의를 다짐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청년부의 새목표는 “배우며 봉사하며 가르치

며”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면서 몸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우리 청년들이 실행하고자 이태훈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행동지침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자 합니다. “배우며 봉사하며 가르치며 형통하며”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욕구가 쉽게 충족되는 그러한 세속적 형통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교묘히 잘 피해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극복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함이라 생각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맞닥뜨리게 될 고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내게 맡겨진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12월 24일은 수요일입니다. 당일 성탄 전야 예배가 있는 관계로 우리 교회는 수요일부 예배를 갖지 않기로 하고 11부(저녁7시)예배시 어린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전야예배를 드립니다.

· 성탄절(12월25일) 새벽은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신 것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림으로 목자들이 동리로 달려갔듯이 새벽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찬송하며 기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날 새벽 기도회 시간은 5시입니다.

· 성탄 축하예배는 12월25일(목)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온가족이 함께 나와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날 저녁 모임은 없습니다.

· 25일 오후부터 26일 오후까지 우리교회 교역자 연말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때에는 성도들께서 교역자를 가급적 찾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31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또 밤 10시부터 '찬극대회'가 있는 관계로 수요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1월1일 0시 새해를 맞을 준비를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에는 본당이 소등될 것입니다.

고등부·대학부 신,구임원에게 듣는다

서울교회 젊은이여! 일어나라

최인애(고등부 신임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부 회장을 맡은 최인애입니다. 처음 제가 회장후보가 됐다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고 2분 정도 말할 글을 써오라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막상 나갔는데 회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어머니께 후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회장이 갖추어야 할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고등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이 되기 전에 다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맡겨주신 직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하겠습니다.

고등부는 시험기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

들이 많습니다. 학원 때문에 고등부 모임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2004년 서울교회 고등부는 시험이나 학원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중함을 실천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요셉(고등부 전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떠나면 미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어제 일 같은데 길어보이던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고등부를 이끌어 가야할지 막막했는데 이렇다 할 만한 것도 없이 1년을 보낸 것 같아 고등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회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지체들이 되길... 특별히, 내년 한 해 동안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대학부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 순결서약식 신청 접수 중

사무국과 교회학교에서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들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순결서약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는 사무국과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에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8일(주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서약식을 마친 성도에게는 순결 반지가 주어진다.

말이 못한 것에, 그리고 회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올해 회장으로서는 못다 한 일들을 고등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로 대신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뽑힌 2004년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고등부를 위해 기도 많이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회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고등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때 뒷짐지고 바라만 보지 마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해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4년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역원과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고등부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몸은 비록 멀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와 함께 애써주신 올해 임역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04년 농어촌 100교회결연연방 (다음 주계속)

91	대구 낙원교회	석봉(목)	이재권·김연옥
92	대초교회	유동인(목)	가브리엘찬양대
93	미동교회	최태환(전)	김성준·김진영
94	미산동부교회	강신창(목)	최학인·최소희
95	반포교회	김익찬(전)	홍정호·우선자
96	신원교회	류지인(목)	임홍수·하옥봉
97	연평교회	이식노(목)	김철호·안미경
98	장금교회	윤영석(목)	1-12다락방
99	봉기교회	김학경(전)	12-2다락방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주) 천양예배시 인천 중앙광로교회에서 설교한다. 18일(목) 북음신앙동지회 모임을 갖는다.
- 이사: 3교구 김정순집사대치4동 617-19 현경빌라 202호 전화: 508-6190
- 특남: 이지수·이미순 성도(6교구)
- 금주의 식사: 강승용 집사·서경애 권사 가정(모친 장례를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금 오후 7시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극동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ctn.tv

이조은(대학부 신임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대학부 회장으로 세우셨던 11월 2일의 총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뻐뻐합니다.

그 날, 묘하게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주셨던 사랑의 말씀을 저도 그날 함께 받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교만과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지만,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대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신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확신해야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어지길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로 임명된 찬양대원·교구일꾼·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16일(화)에 있을 메시아 공연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